* 등급정보 (계란) *

▷ 25개 업체에서 생산한 3천7백10만8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 85.6%, 1등급 12.0%, 2등급 0.1%, 3등급은 2.2%를 차지, 전월대비 1백77만4천개(4.6%) 감소, 전년동기(21개 업체, 3천4백29만1천개)대비 2백81만7천개(8.2%) 증가. 금월누계는 3억3천6백4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5천4백98만개(19.6%)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중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9년 1~10월	336,004	283,317	84.3	43,769	13.0	2,081	0.6	6,838	2.0
'09년 9월	38,882	33,071	85.1	4,839	12.4	366	0.9	607	1.6
'09년 10월	**37,108**	**31,779**	**85.6**	**4,469**	**12.0**	**46**	**0.1**	**814**	**2.2**
왕란	156	140	89.3	17	10.7	-	-	-	-
특란	28,019	24,431	87.2	3,582	12.8	7	-	-	-
대란	8,913	7,189	80.7	871	9.8	39	0.4	814	9.1
중란	20	20	100.0	-	-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양계협회,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기념식

대한양계협회의 '월간양계'가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준동 양계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월간양계는 양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달려온 40년보다 향후 40년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계인의 길라잡이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사에서 "양계산업은 지난해 1조4천294억원 규모로 커졌다. 사육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미약한 부분도 있다. 월간양계가 농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월간양계 초대 편집부장은 회고사를 통해 "양계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40년은 과거보다 10배는 더 변화속도가 빠를 것이다. 양계산물이 식품산업의 중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월간양계 모습을 그려본다" 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월간양계 40주년을 기념해 감사패와 공로패 등이 전달됐다.

‡ 노계 적극 도태... 계란값 폭락 막아야

계란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산란노계를 서둘러 도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통계에 따르면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6천2백만수. 지난해 같은 기간 5천8백만수보다 6.5%나 많다. 그렇지만 산란계 도계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집계결과, 9월 산란계 도계수수는 177만2천9백수로, 전년동기 177만6천1백수 대비 0.2% 적었다. 노계군이 늘고 계란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대목. 11월 6일 현재 특란가격은 117원이지만 할인가격을 제외하면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농가들 하소연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노계를 도태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급조절 방법이다. 특히 환절기 환우에 들어갈 경우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은 고품질 계란을 선호한 만큼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산신문〉